

Global Automotive Executive Survey 2020



Say goodbye to one global market –
recognize increasing localization,
accelerated by COVID-19.

Extended Summary

July 2020

<https://automotive-institute.kpmg.de/GAES2020/>

Contents

| | Page |
|-----------------|------|
| Overview | 2 |
| Megatrends | 3 |
| Product Value | 4 |
| Customer Value | 5 |
| Ecosystem Value | 6 |

본 보고서는 삼정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본 보고서는 KPMG Global이 발간한 Global Automotive Executive Survey 2020이며, 삼정KPMG 경제연구원에서 한글 요약한 자료입니다.

보고서 원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automotive-institute.kpmg.de/GAES2020/>



개요

KPMG는 전세계 30개국 1,154명의 자동차 관련 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글로벌 자동차 시장 트렌드 보고서인 ‘Global Automotive Executive Survey 2020’을 발간했다. 응답자는 기업의 C-레벨 임원(27%)이 가장 많았으며(CEO 제외), 그 다음은 CEO/대표이사/회장(24%), 부문장(17%) 등의 순서이다. 조사 대상 지역은 북미(27%), 중국(23%), 서유럽(22%), 인도와 ASEAN(7%)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산업별로는 자동차 제조업체(25%), 부품 공급업체(21%), ICT 기업(14%)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조사대상 기업의 매출액 분포는 10억 달러 이상 100억 달러 미만이 37%로 가장 많고, 100억 달러 이상 기업이 22%, 5억 달러 이상 10억 달러 미만 기업이 16%로 구성되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메가트렌드와 함께 제품, 소비자, 모빌리티 생태계 측면에서의 설문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임두빈
수석연구원
Tel: +82 2 2112 7469
doobeenyim@kr.kpmg.com

김주희
책임연구원
Tel: +82 2 2112 7976
jkim206@kr.kpm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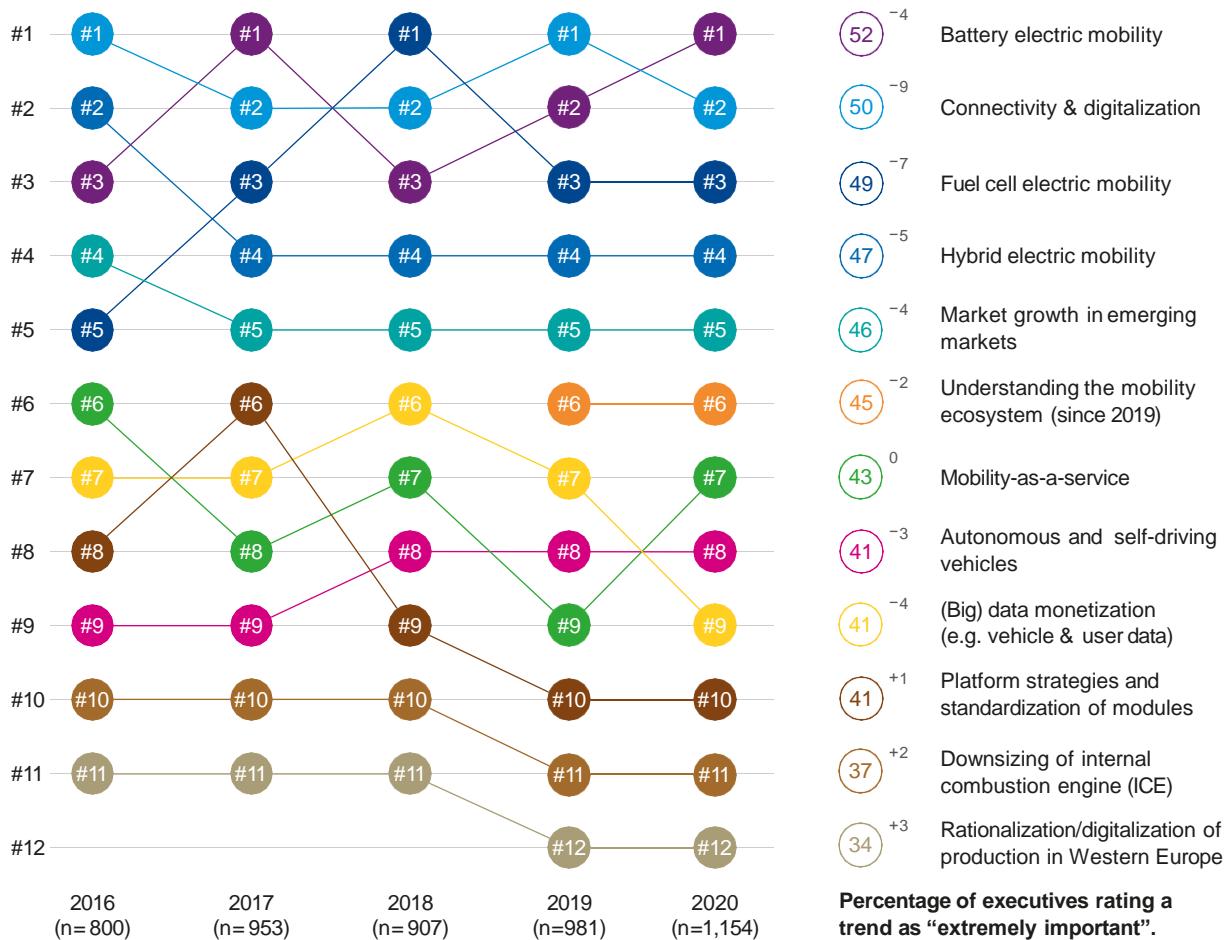
엄이슬
선임연구원
Tel: +82 2 2112 3918
yeom@kr.kpmg.com

Megatrends

2020년 조사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자동차 산업을 이끌 핵심 트렌드 1위에 ‘배터리전기차(BEV)’가 선정됐다. 지난해 첫번째 핵심 트렌드로 꼽혔던 ‘연결성과 디지털화 (Connectivity & Digitalization)’는 2위로 순위가 하락했고, ‘수소전기차(FCEV)’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위를 차지했다. 이 세 가지 트렌드는 2017년 이후 꾸준하게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매김 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글로벌 시장의 성장과, 2018년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 상황 가운데, 자동차 기업들은 차세대 기술과 파워트레인(Power train) 연구개발에 집중해 왔다. 이로 인해 2020년 자동차의 주요 미래 트렌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역시 차세대 기술로 꼽히는 배터리전기차, 연결성과 디지털화, 수소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전기차 등이 높은 순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2030년까지 자동차 산업을 이끌 핵심 트렌드]



이미징마켓(Emerging market)의 성장 역시 작년에 이어서 5위를 차지했다. 또한 2019년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모빌리티 생태계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 the mobility ecosystem)는 2년 연속 6위로 꼽혔다.

“
2030년 자동차 핵심
트렌드는 배터리전기차,
연결성과 디지털화, 그리고
수소전기차”

반면 자율주행 및 자율주행차(Autonomous and self-driving vehicles)는 지난해에 이어 8위에 머물렀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익 창출(Big data monetization)은 7위에서 9위로 하락하면서 우선 순위가 다소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2020년 조사에서는 아직까지 경영진들이 이 두가지 트렌드에 관해서 상대적으로 기술 발전 속도가 느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경영자들은 KPMG Automotive Institute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개별 자율주행차 간의 혼합 트래픽(mixed traffic)’이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주요 경영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있어야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로의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율주행 및 자율주행차의 트렌드 순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Product Valu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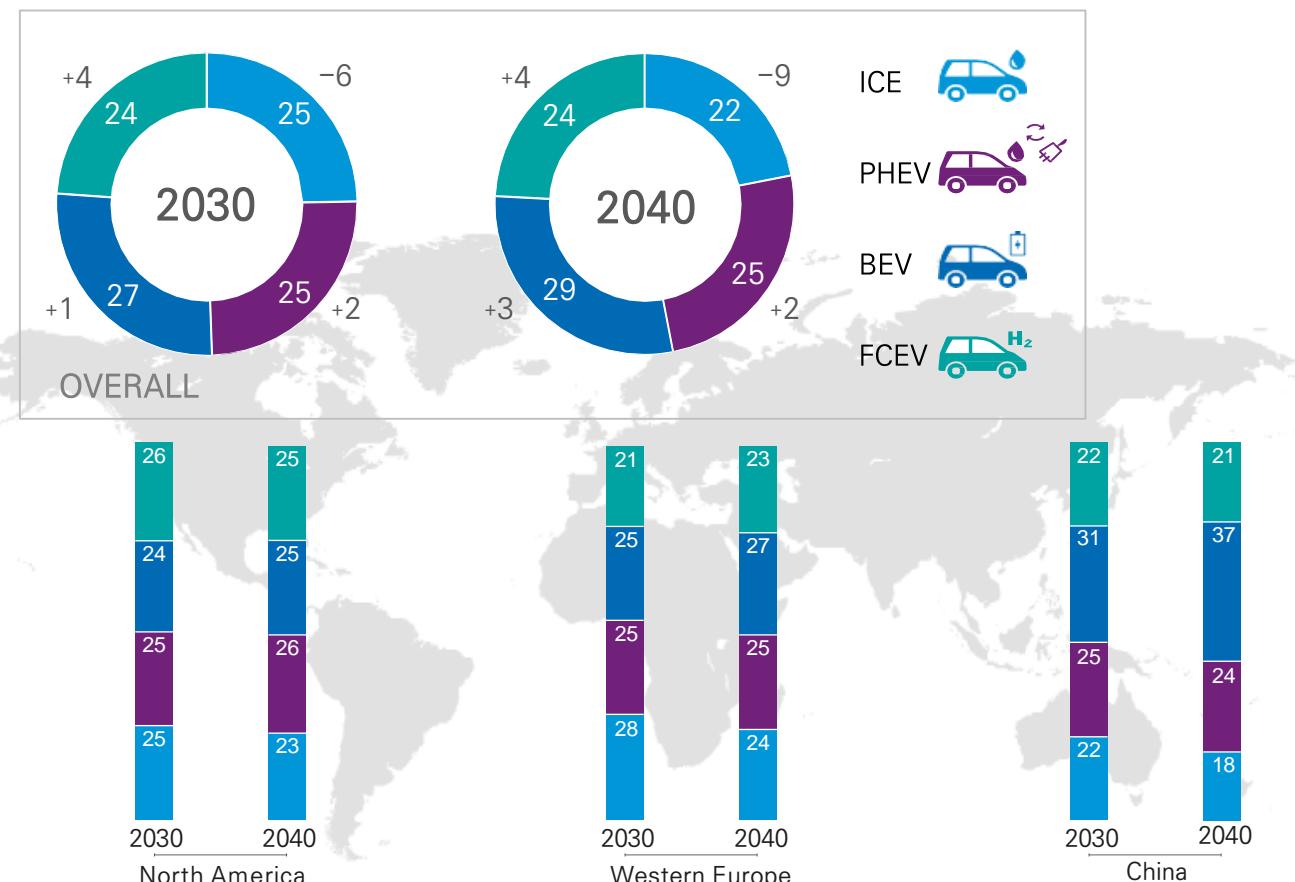
2030년에는 더 이상
내연기관차가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 것…
다양한 유형의 자동차가
공존하는 세상

”

경영진들은 2030년에는 더 이상 내연기관차(ICE)가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 것이며, 수소전기차, 배터리전기차, 하이브리드차가 공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연기관차가 주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KPMG 설문조사 역사 아래 처음 나온 결과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내연기관차의 비중은 2030년 25%에서 22%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배터리전기차는 27%에서 2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에서는 충분한 전기공급장치가 확보될 수 있다. 하지만 경영진들은 장거리 통근 또는 산업용 차량 운행 같은 부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전기공급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았다. 한편 KPMG Automotive Institute는 코로나19가 차세대 자동차 기술 개발을 늦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다.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보조금 형성 여부에 따라서 국가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오히려 정부 정책이 배터리전기차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

[2030년 – 2040년 자동차 유형 비중 전망]



- ICE (Internal combustion engine, 내연기관차)
- BEV (Battery electric vehicle, 배터리전기차)
- PHEV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하이브리드차)
- 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 수소전기차)

Source: KPMG's Global Automotive Executive Survey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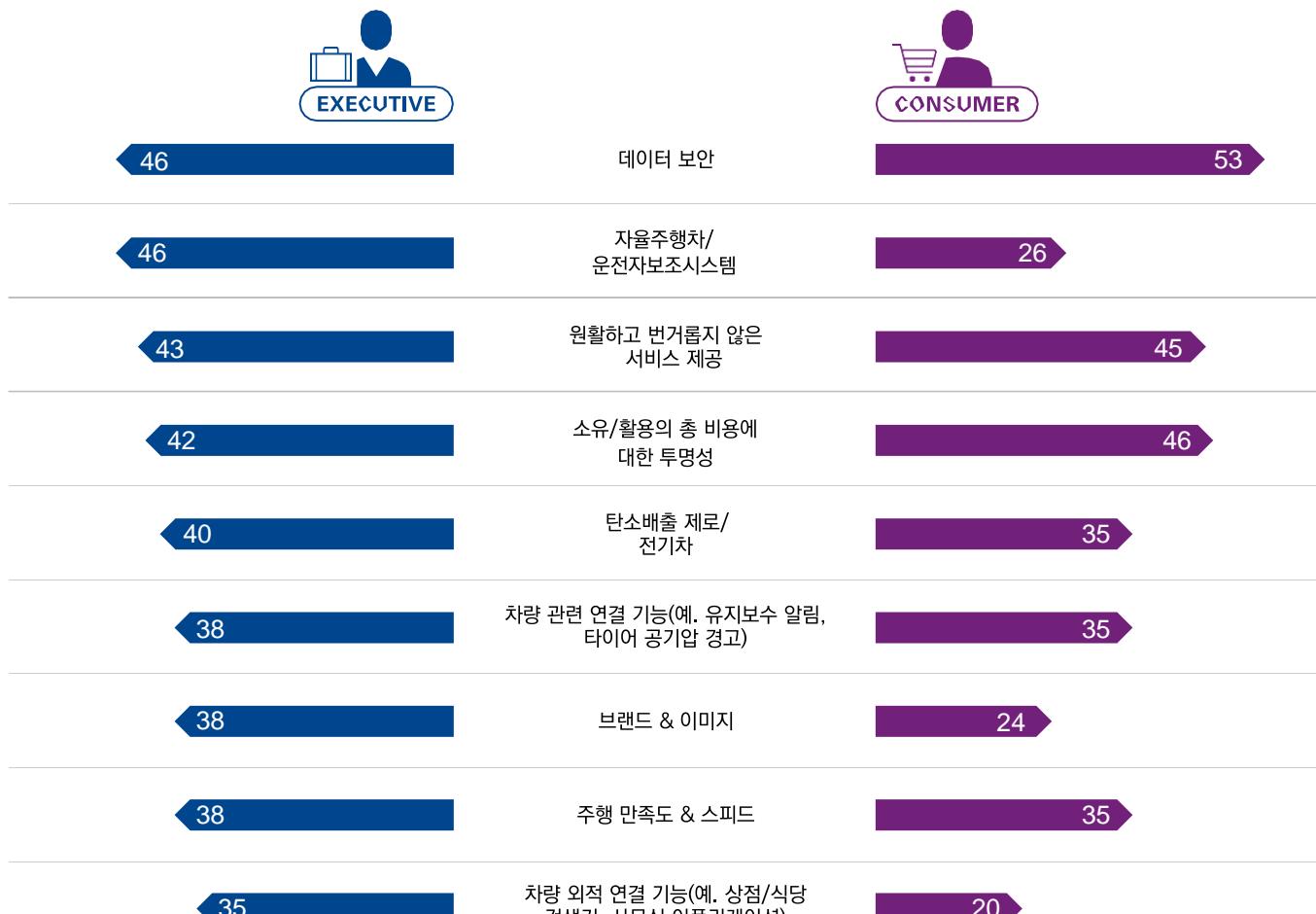
Note: 경영진 (n=1,154). 반올림으로 인해 백분율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Customer Value

“
데이터 보안이 향후 5년간
자동차 구매 및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가 될 것
”

2020년의 설문조사에서 ‘향후 5년간 자동차 구매 및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라는 질문에 데이터 보안이 1위로 지목됐다. 경영진의 46%, 소비자의 53%가 데이터 보안이 구매와 서비스 이용 의사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조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비용에 대한 투명성은 소비자의 46%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며 2위를 차지했는데, 특히 코로나19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제한된 현재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고객의 신뢰를 얻은 프레임워크 내에서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목할 점은 경영진들은 자율주행차 및 운전자보조시스템이 자동차 구매와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으나, 소비자의 우선순위에서는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활하고 번거롭지 않은 서비스 제공은 경영진과 소비자가 모두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할 때 원활한 결제 시스템, 간편한 충전, 차량 가용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향후 5년간 자동차 구매 및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 결정요소]



Source: KPMG's Global Automotive Executive Survey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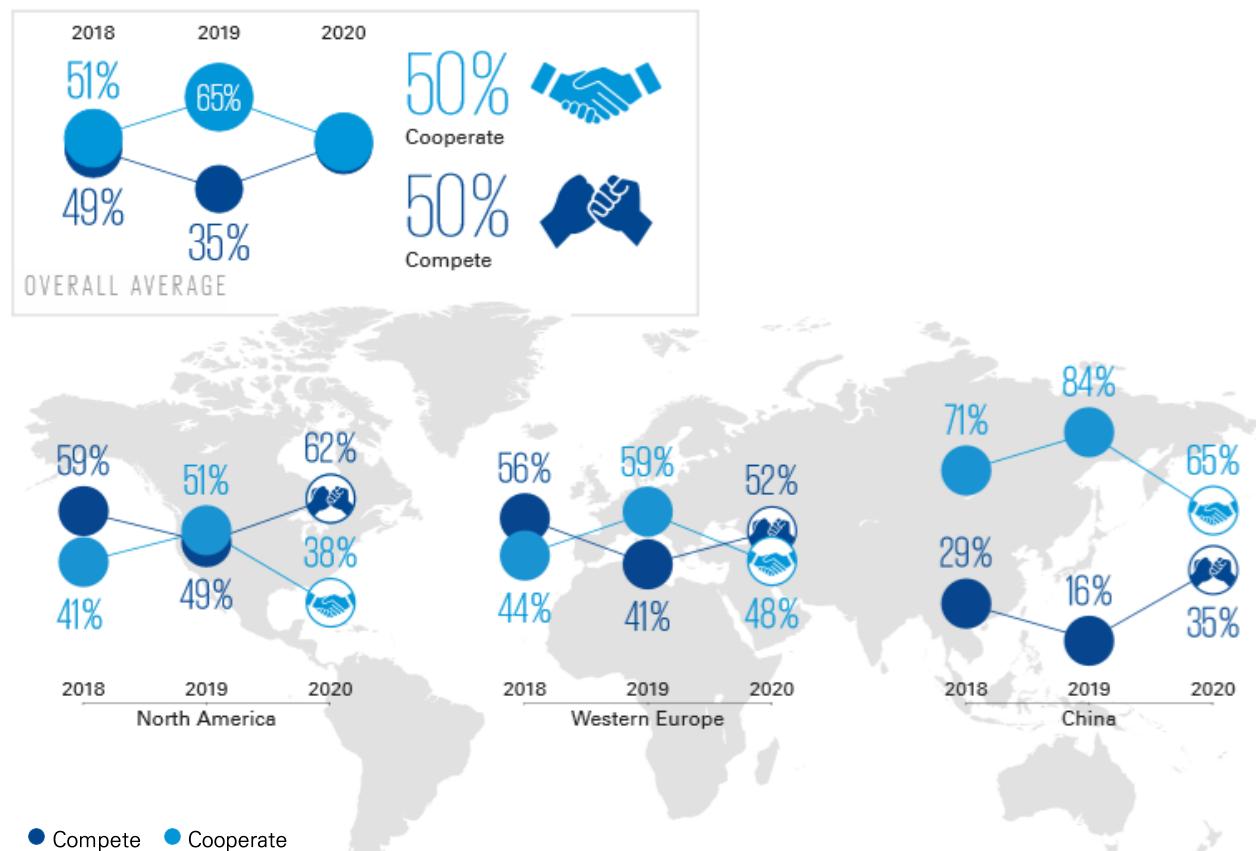
Note: 경영진 (n=1,154). 소비자 (n=2,028). 단위는 %. 설문에 대하여 해당 요소를 “가장 중요”로 답한 응답자의 비중.

Ecosystem Value

“
향후 ICT 기업과 자동차
기업의 협력을 기대한다는
응답이 2019년 대비 감소

‘ICT 기업과 자동차 기업이 미래에 협력할 것인가 경쟁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자동차 산업 경영진의 절반이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2019년도 조사에서는 협력할 것이라는 답변이 65%에 달한 것에 비하면 다소 감소한 수치이다. 답변에 대한 지역별 차이도 존재한다. 북미 지역 경영진은 협조보다는 경쟁적인 접근방식을 취했으며, 중국(65%), 서유럽(48%) 경영진은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해당 설문조사는 2014년 이후 자동차 산업에서 ‘협력’이 분명한 주제임을 보여준다. 이때, 협력에 대한 판단은 세 가지 주요 단계를 거쳐왔는데,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완성차 기업들이 스타트업과 ICT 플레이어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완성차 기업들이 서로를 경쟁자로 보았기 때문에 ICT 기업을 그들의 성장에 적합한 파트너로 인식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이르러서는 실제 경쟁이 자동차 업계 외부에서 오고 있음을 깨닫고 동료 그룹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KPMG는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향후 완성차와 Tier 1 공급업체들의 협력과 통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ICT 기업과 자동차 기업이 미래에 경쟁/협력하는가]



Source: KPMG's Global Automotive Executive Survey 2020

Note: 경영진 (n=1,154). 반올림으로 인해 백분율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Business Contacts

Automotive

위승훈
부대표
T: 02-2112-0620
E: swi@kr.kpmg.com

강성채
상무
T: 02-2112-0635
E: sungchaekang@kr.kpmg.com

전현호
상무
T: 02-2112-0638
E: hyunhojeon@kr.kpmg.com

남상민
전무
T: 02-2112-7811
E: sangminnam@kr.kpmg.com

신동준
상무
T: 02-2112-0885
E: dongjunshin@kr.kpmg.com

이종상
상무
T: 02-2112-7096
E: jongsanglee@kr.kpmg.com

변재준
전무
T: 02-2112-0828
E: jbyun@kr.kpmg.com

김재연
상무
T: 02-2112-0206
E: jaeyeonkim@kr.kpmg.com

박경호
상무
T: 02-2112-7838
E: kyunghopark@kr.kpmg.com

kpmg.com/kr

© 2020 Samju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